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할 때 성자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정신 축복’을 주었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나에게 정신의 축복을 주셨다.
3.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4. 인간은 ‘몸’으로 살아간다.
5. ‘신의 정신 축복’이다.
6.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살아간다.
7. ‘정신’으로 다스리고, 알고, 행하고, 누린다.
8. 정신이 발달되지 않으면 시대는 21세기에서 살아도 구세기 삶을 산다.
9. 정신이 미개한 자는 육도 미개하다.
10. 절대자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이다.
11.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며 사는 맛을 못 느낀다.
12. 정신 축복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13. 정신 축복은 영의 축복으로 연결된다.
14. ‘정신’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실제로 이상을 이룬다.

15. 어떤 사람은 정신이 어려서 인생 80년, 100년을 살았어도 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16. 물질과 재물과 명예에 빠져 살고, 이성 향락에 빠져 살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사는 정신은 가치 없는 정신이다.

17. 전능하신 신의 정신, 곧 성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 축복이다.

18. 나는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간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다.

19. 하나님의 정신과 메시아 성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허무를 벗어나고 확실히 알고 산다.

20. 차는 엔진으로 살아간다.

21. 짐승도 정신이 있다. 그러나 신을 모르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고로 인간도 창조자를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다.

22.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영’으로 살아가라.

23. 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 단순하지 않다.

24. 인간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며 산다. 그러다 늙으면 세포가 죽어서 그나마 느끼던 것도 못 느낀다.

25. 나는 신의 정신 축복을 받고, 마음을 못 잡고 “인생이 뭐냐?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정신을 잡아 주고 인생이 같

길을 알려 주어 영혼의 삶을 살게 해 주며 인도해 주었다.

26. 인간 스스로는 허무와 공허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면서 ‘영’을 모르고 정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 허무하다.

27. 사람이 창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확신에 찬 정신으로 희망과 기쁨으로 산다.

28. 육적인 정신으로 살면 허무하고 공허하다.

29. 신의 정신, 영의 정신으로 살면 확실히 산다.

30.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체, 곧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

31. 정신체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정신체’가 육체를 움직여 육의 운명을 좌우시키고, 영체를 움직여 영의 운명도 좌우시킨다.

32. 하나님도 성자도 육체보다 정신체에 더욱 역사하신다.

33.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간의 정신체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과 말이 깨달아진다.

34. 정신체에 하나님과 성자가 임해야 된다. 정신이 온전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35. 정신체는 육체와도 통하고 영체와도 통한다. 정신체는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다.